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김 영 주(중앙대학교 교수)

유 병 선(경희대학교 강사)

I. 서론

통계에 의하면, 2010년 한국 사회의 주거이동율은 16.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ww.kosis.kr, 국내이동인구통계). 주거이동은 개인과 가구의 입장에서 질 좋은 주택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동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주거이동은 개인주의의 증가 및 집단주의의 감소와 연결된다는 Baumeister의 지적처럼(Baumeister, 1987), 잦은 주거이동은 사람들 사이의 정주의식을 떨어뜨리고 공동체 문화형성을 어렵게 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거이동은 친숙한 생활의 근거지에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Oishi, 2010). 주거이동을 하는 경우 이동자들은 비이동자들보다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역할도 적극적으로 충족되지 못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Saito, Lee & Kai, 2007). 주거이동자들은 자신이 속하는 커뮤니티에 참여를 덜 하게 됨에 따라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며(Farrell, et al., 2004) 이는 안녕감의 감소로까지 연결된다(Theodori, 2001; Farrell, et al., 2004). 매일 매일의 사회적 관계는 거주자의 주거지에 대한 애착을 창조하게 되고, 애착은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Ponzetti, 2003). 한 주거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소에 대한 애착을 더 강하게 갖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Gilleard, Hyde & Higgs, 2007b).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주거이동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Gilleard, Hyde & Higgs, 2007a).

뿐만 아니라 주거이동율이 낮은 안정적 커뮤니티에서 주거이동율이 높은 불안정한 커뮤니티로 옮길 경우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Greenfield, 2009). 그에 대한 사례로,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s Epidemiological Catchment Survey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개인적인 특성(연령, 성별, 인종, 교육, 소득)을 통제된 후에도 주거이동이 잦은 지역에서의 우울수준과 약물남용수준은 주거이동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ulvey & Swanson, 2002).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하면 거주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래도록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곽현근, 2003).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주거이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실제적인 주거이동이나 이주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거주자의 새로운 주거수요욕구에 대응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안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주택과 주거관련 서비스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거주자의 주거지에 대한 소속감, 지역 주민과의 연대의식, 이웃 간의 정서적 친밀감 등 커뮤니티 의식과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관계가 거주자의 주거이동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경환,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주거지에 대한 애착심과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거주자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는 인식 하에, 주거이동성이 높은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지역내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이들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성하는 방안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해 연구내용에 맞게 설문문항을 구성한 후 2010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청에 근무하는 주택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용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광주광역시 5개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산하 92개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수락을 받은 후, 2010년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편조사방법을 통하여 협조 공문, 설문지와 반송봉투를 함께 배포,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2009년 11월 기준 광주광역시의 주민등록 세대수 총 523,242 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확률은 0.3%로 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2008년 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 2009)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5개 구에 속하는 총 92개 각 동별로 15부씩 총 1,3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601개의 설문지를 회수(회수율 43.5%)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설문문항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특성), 주거환경만족도, 커뮤니티의식(주민자치활동참여여부, 주민자치활동만족도, 동네관심도) 그리고 정주의식(이사의향)을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표 1> 설문문항의 구성

구분	설문 내용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남자=0/여자=1), 연령, 학력, 직업(공무원=0/공무원외=1), 가구소득, 가족구성(부모+자녀=0/그외=1)
주거환경만족도	<주거 특성> 주택소유형태(자가=0/차가=1), 주택유형(아파트=0/아파트외=1), 거주기간 공공시설, 보육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여가문화시설, 상업시설, 녹지, 주민모임공간
커뮤니티의식	주민자치활동 참여정도 (참여안함=0/참여함=1) 주민자치활동만족도 동네관심도
정주의식	향후 이사 의향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 가족구성을 질문하였으며, 주거특성으로는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거주기간을 파악하였다.

주거환경만족도는 공공시설, 보육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여가문화시설, 상업시설, 녹지, 주민모임공간 등 총 11개 주거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커뮤니티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지역내의 각종 주민자치활동(반사회, 부녀회 등)에 대한 참여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주민자치활동 만족도를 단일문항(5점 척도)으로 질문하였다. 이와 함께 동네관심도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동네에 대한 관심정도(5점 척도)를 묻는 총 10가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87의 신뢰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정주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이사 의향이 있다/없다라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표 2> 동네 관심도 설문문항

설문 문항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동네를 위해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싶다.
나는 우리 동네의 중요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동네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 지역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은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역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자원(유적지, 수려한 자연환경 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주민회관 등 공동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조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주민의 동네관심도 척도에 대해서는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주거환경만족도, 커뮤니티 의식, 정주의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특성을 통제한 후 주거환경만족도, 커뮤니티의식(주민자치활동참여여부, 주민자치활동만족도, 동네관심도)이 정주의식(이사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항로지회귀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전체
성별	남자	294(50.0)
	여자	294(50.0)
	계	588(100.0)

<표 3> 계속

		전체
연령	20대	168(28.6)
	30대	206(35.1)
	40대	136(23.2)
	50대이상	77(13.1)
	계	587(100.0)
학력	중졸이하	31(5.4)
	고졸	102(17.6)
	초대이상	446(77.0)
	계	579(100.0)
직업	공무원	259(44.2)
	일반시민	327(55.8)
	계	586(100.0)
가구 월소득	100만원 이하	78(13.4)
	101-200만원 이하	162(27.8)
	201-300만원 이하	131(22.5)
	301-400만원 이하	104(17.8)
	401만원 이상	108(18.5)
계	583(100.0)	
가족구성	혼자	52(8.9)
	부부	72(12.3)
	2세대	364(62.3)
	3세대	55(9.4)
	기타	41(7.0)
계	584(100.0)	
주택소유형태	자가	368(64.3)
	차가	204(35.7)
	계	572(100.0)
주택유형	아파트	396(68.0)
	단독/다가구	145(24.9)
	다세대/연립	41(7.0)
	계	582(100.0)
거주기간	2년 미만	117(20.0)
	2-5년 미만	141(24.1)
	5-10년 미만	114(19.5)
	10년 이상	213(36.4)
	계	585(100.0)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 녀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6.4세로 특히 30대가 3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초급대학 졸업 이상이 77.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공무원이 44.2%였고 나머지 55.8%는 다양한 직종을 가진 일반 시민이었다. 응답자의 50.3%가 101~300만원 이하의 월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은 부모+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가 62.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1세대 가구 12.3%, 3세대 가족 9.4%, 혼자 사는 단독가구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64.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전세와 월세를 합한 차가가구는 35.7%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독·다가구(24.9%), 연립·다세대(7.0%)의 순이었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2. 주거환경만족도, 커뮤니티 의식, 정주의식 특성

1)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11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시설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임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2.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임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유일하게 보통 이하의 만족정도를 보였다.

<표 4> 주거환경만족도

평균(표준편차)

변수	전체
공공시설(N=581)	3.55(.90)
보육시설(N=565)	3.26(.84)
교육시설(N=569)	3.34(.92)
복지시설(N=566)	3.10(.86)
체육시설(N=569)	3.07(1.03)
주거환경만족도 의료시설(N=578)	3.24(.95)
여가문화(N=563)	3.09(1.06)
상업시설(N=559)	3.22(1.01)
녹지(N=574)	3.30(1.08)
모임공간(N=562)	2.92(.91)
전체	3.21

2) 커뮤니티 의식

(1) 주민자치활동 참여정도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활동(반사회, 부녀회 및 각종 주민모임 등)의 참여정도를 알아본 결과, 참여를 안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2.0%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민자치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필요할 때만 참여한다는 응답이 16.6%로 조사되었으며, 월 1-2회 참여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표 5> 주민자치활동 참여정도

구 분	빈도 (%)
참여 안함	412(72.0)
필요할 때만 참여	95(16.6)
년 1-2회 참여	9(1.6)
월 1-2회 참여	37(6.5)
주 1-2회 참여	16(2.8)
거의 매일 참여	3(0.5)
계	572(100.0)

(2) 주민자치활동만족도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매우 만족한다 5점)로 파악한 결과, 평균 3.09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만족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주민자치활동 만족도	3.09(.66)

(3) 동네관심도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10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이 중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3.60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나는 우리 동네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문항은 평균 2.40점으로 가장 낮아 이웃 주민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다(<표 7> 참조).

<표 7> 동네 관심도

동네관심도	평균 (표준편차)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N=576)	3.60(.94)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N=577)	2.40(1.12)
나는 우리 동네를 위해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싶다.(N=573)	2.84(.90)
나는 우리 동네의 중요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N=575)	2.80(.98)
나는 우리 동네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N=574)	2.72(.97)
나는 우리 지역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N=571)	2.54(1.03)
우리 마을은 깨끗한 편이다.(N=568)	3.19(.93)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은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N=568)	3.10(.93)
우리 지역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자원(유적지, 수려한 자연환경 등)을 가지고 있다.(N=561)	2.70(1.04)
우리 동네 주민들은 주민회관 등 공동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N=574)	2.72(1.02)

3) 정주의식

조사대상자의 정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이사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8.1%, 이사의향이 없다는 41.9%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약 2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현 거주지의 생활여건 개선여부 및 만족도 상태에 따라 정주의식 역시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8> 정주 의식

구 분	빈도 (%)
있다	222(38.1)
없다	244(41.9)
모르겠다	116(19.9)
계	582(100.0)

3.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의식이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여($\chi^2=76.432$, $***P<.000$)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S.E	Wals	유의확률	Exp(B)
일반적 특성					
연령	.011	.012	.824	.364	1.011
성별	.007	.202	.001	.973	1.007
학력	.106	.061	3.048	.081	1.112
가족구성	-.352	.432	.663	.415	.704
월소득	.189**	.068	7.644	.006	1.207
직업	.563*	.230	5.995	.014	1.756
주택소유형태	-.435	.247	3.101	.078	.647
주택유형	-.754**	.245	9.442	.002	.471
거주기간	-.002	.001	2.323	.127	.998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050**	.018	7.964	.005	.951
커뮤니티 의식					
자치활동참여더미	-1.871	1.215	2.371	.124	.154
자치활동만족도	-.122	.182	.453	.501	.885
동네관심도합	-.050*	.021	5.506	.019	.951
상수향	.732	1.203	.370	.543	2.079
-2Log likelihood			585.704		
χ^2			76.432****		

*P<.05 **P<.01 ****P<.000

분석결과, 주거환경만족도는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거환경만족도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사할 의향이 0.9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Exp(B)=0.951, p<0.01). 즉,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커뮤니티 의식에 있어서 주민자치활동 참여여부 및 주민자치활동만족도는 정주의식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동네관심도는 정주의식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동네관심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사할 의향이 0.9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Exp(B)=0.951, p<0.05) 조사대상자의 동네관심도가 높을수록 이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환경이 살기에 좋아 만족도가 높을 경우 정주의식 역시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커뮤니티 의식에 있어서 주민자치활동의 참여여부와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정주의식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주민자치활동에 근거하여 이사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지만,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정주의식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월소득, 직업, 주택유형이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사할 확률이 1.20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ext{Exp}(B)=1.207, p<0.01$), 공무원에 비해 일반 시민의 경우 이사할 확률이 1.75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1.756, p<0.05$). 한편 직업면에서는 공무원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 특성상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지리적 이동이 잦지 않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편리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거주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그 외 주택유형보다 이사할 확률이 0.4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0.471, p<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다 안정적이고 살만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거주자의 정주의식 확립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사성향이 높은 대도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현재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의식(주민자치활동 참여여부, 주민자치활동 만족도, 동네관심도)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거주자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정주의식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원하는 주택으로의 이동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주지역별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재생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소득계층별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거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거주지역 주변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정주의식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거주자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성, 건강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획 및 정책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거주자의 커뮤니티 의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주민자치활동만족도 및 주민자치활동참여여부는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역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활동(반사회, 부녀회, 노인회, 주민행사 등)은 소수의 제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앞으로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이웃 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이룰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거주자의 커뮤니티 의식이 거주지역에 대한 정주의식 향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 차원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만족도를 측정에 있어 주민 생활의 다양한 차원(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주로 물리적 생활편의시설 중심으로 만족도를 측정했다는 한계 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로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거주자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 조성에 필요한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의식 간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곽현근(2003).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 이경환(2008).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1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3**(5), 23-33.
- 통계청(2011). 국내이동인구통계(www.kosis.kr)
- Baumeister, R. F.(1987). How the self became a problem: A psychological review of histor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63-176.
- Farrell, S. J., Auby, T. & Coulombe, D.(2004). Neighborhoods and neighbors: do they contribute to personal well-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9-25.
- Gilleard, C., Hyde, M. & Higgs, P.(2007a). The impact of age place, aging in place, and attachment to place on the well-being of the over 50s in England. *Research on Aging*, *29*(6), 590-605.
- Gilleard, C., Hyde, M. & Higgs, P.(2007b).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the third age: the impact of Internet and cell phone use on attachment to place in later life in England.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 S276-S283.
- Greenfield(2009). Linking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al change: Shifting pathways of human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 401-418.
- Oishi, S.(2010). The psychology of residential mobility: Implications for the self, social relationships and well-being. *Perspective on Psychological Science*, *5*(1), 5-21.
- Ponzetti, J. J.(2003). Growing old in rural communities: A visual methodology for studying place attachment. *Journal of Rural Community Psychology*, *E6*(1), 1-11.
- Saito, T., Lee H. & Kai, I.(2007). Health and motivation of elderly relocation to suburban area in Japan.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5*, 217-232.
- Theodori, G. L.(2001). Examining the effects of community satisfaction and attachment on individual well-being. *Rural Sociology*, *66*, 618-628.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이 현 정(충북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잦은 주거이동으로 정주의식과 공동체 문화 형성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거주자의 삶의 질이 위협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주거이동성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지역내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이들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문조사 등 여타 설문지 조사방법과 비교하여서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되어온 우편조사방법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43%가 넘는 회수율을 보였다는 점과 표본표출 방법 면에서 볼 때 유사연구를 수행할 때에 참고할 수 있을 연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가지 주거지 관련 만족도 및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정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흥미로운 연구이다.

본 연구는 안정적인 거주지 구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큰 연구의 한 조각으로 정주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염두에 두고 논의해 볼 사항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 문제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내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식, 그리고 정주의식이 주거지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인구층은 과연 누구일까?

통계청에서 발행한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통계청, 2011a) 및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표(통계청, 2011b)에 근거하면 2010년 한해 우리나라 국내이동자수는 모두 8,226,594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에 해당한다. 이들 국내이동자를 시도내 혹은 시도간 이동 여부 및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시도내 혹은 시도간 이동

- 시도내 이동자는 전국 이동자의 67.6% (→ 주거불만족이나 이로 인한 정주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거주지이동 가능성이 높다.)
- 시도간 이동자는 전국 이동자의 32.4% (→ 이들의 주거지이동 이유는?)
- 서울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 중 38.1%가 서울 이외 수도권(인천, 경기도)로 전출 (→ 이들의 주거지이동 이유는? 주거비 부담?)

▶ 연령별 이동

- 국내 이동자 중 20-30대가 3,500,491명으로 전체 국내이동자수의 42.6%에 해당 (→ 이들의 주거지이동 이유는? 직장, 생애주기, 주거지불가능성?)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해 보거나, 직접적으로 이들의 만족도나 정주의식이 주거이동에 영향을 이미 주었는지, 혹은 근미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함께 조사하여 그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성이 더 확보되어 있는 자가가구와 그렇지 못한 차가가구의 주거이동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해석에 관련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의식이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최종분석에서 정주의식 종속변인으로 두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내 주민 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커뮤니티 의식, 그리고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직장 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정주의식이 형성되고 정주의식의 형성으로 주거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통계청(2011a).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http://kosis.kr/ups3/service/ch_file_down.jsp?PUBCODE=AD&FILE_NAME=/ups3/upload/101/AD/AD_YB2010.pdf&SEQ=637

통계청(2011b).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13